

광주·전남 학생 잇단 확진...심상찮은 'n차 감염'

학생 누적확진, 14명 달해...전체 확진자 중 4%
초등 남매·자매, 중학생 오빠·초등 여동생 등
감염 경로, 유흥주점·송파60·할아버지와 식사

광주·전남에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이른바 'n차 감염'에 의한 학생 확진자도 늘고 있어 보건·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학기 개학 시점에 2차 유행이 발생해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됐으나 소위 '깜깜이 환자'에 의한 조용한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실존한다.

23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유흥시설과 방문형 학습지, 광화문집회, 물놀이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혈육간 접촉에 따른 10대 학생 감염자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광주가 279명, 전남이 77명으로 모두 35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생 확진자는 광주가 11명, 전남이 3명으로 합쳐서 14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1명(광주 9, 전남 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는 광주 2명, 전남 1명 등 총 3명이다.

초등생 자매, 초등생 남매, 중학생 오빠

와 초등생 여동생 등 형제·자매 기간 감염이 여러 건에 이르고, 감염 경로도 '송파 60번', 유흥주점, 할아버지와 식사 등 다양하다.

초등 여학생인 광주 247번과 오빠인 250번은 226번과 249번의 자녀들로, 보건 당국은 226번 확진자가 유흥주점 종사자(221번)에게 감염된 후 가족에게 전파된 사례로 보고 있다.

무안 모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인 전남 56번과 57번 확진자는 전남 44번 확진자인 진도 70대 남성의 손자들로, 여름방학을 맞아 진도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나란히 감염됐다. 할아버지는 지난 15일 43번 확진자인 이웃과 마을 지인부부 10명과 저녁식사를 했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광주 247·250, 전남 56·57 모두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다.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인 남매가 송파60번(광주 177번) 환자로부터 n차 감염되면서 해당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



됐고, 교직원과 학생 36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았다.

같은달 중순엔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생이 나란히 광주 174, 175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요양원 생활 도중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 172·173번 확진자의 손녀들이다. 이들은 부모가 드라이브 방식으로 받은 교과서와 학습준비물로 학업을 유지했다.

이밖에도 광주 107·146·162·210·245번, 전남 48번 확진자도 할아버지나 부모가 먼저 감염된 뒤 추가 감염된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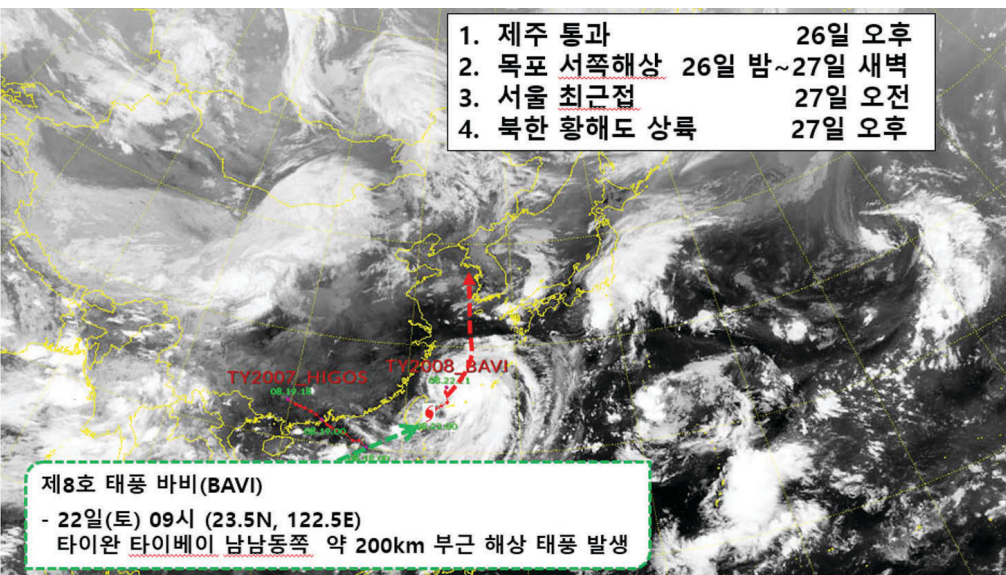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광복절 집회와 나주 물놀이 시설, 학습지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현지 교사 등 일부 접촉자는 음성과 양성 경계치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

는 상태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 감염에 따른 집단 발병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 천만다행"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개인은 물론 교내 전역에 걸쳐 방역 수칙을 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태풍 '바비' 북상...26일 밤부터 전남 서해안 영향권



23일 오전 9시 기준 제8호 태풍 '바비' 이동진로 전망도. (사진=기상청 제공)

광주·전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는 26일 밤부터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영향권에 들며,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제8호 태풍 바비 현황 및 전망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서해 진입...예상 강수량 50~150mm·지리산 300mm 안팎

최대순간풍속 '초속 60m' 강풍...파도 높이 8m이상 전망

이 전망했다.

태풍 '바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만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4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같은 시각 태풍의 최대풍속은 초속 24m이며, 강풍 반경은 240km로 '소형' 태풍으

로 분류된다.

태풍은 계속 동북동진해 오는 26일 오전 9시에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다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이 북서태평양에서 30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제주 남부 해상을 지날 때 세력이 가장 강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후 북진하면서 중심부 기

압이 오르며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 지역은 26일 밤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 들겠다.

강수량은 26일부터 28일까지 50~150mm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리산 부근 등에는

300mm안팎의 폭우가 쏟아질겠다.

비람도 강하게 불어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 풍속이 초속 50~60m(시속 180~216km)에 이를 전망이다.

서해를 중심으로 해상에는 물결이 8m이상 매우 높게 일겠다.

이번 태풍은 2019년 13호 태풍 '링링'(2019년 9월6일~8일),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2012년 8월20일~8월29일)과 진로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26일 밤부터 27일 밤 사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태풍의 진로상, 서해안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